

# 2019

## 독일 취업 경험담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취업 사례집

2019-04-22

(발간사)

## 자랑스런 우리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며...

얼마 전 어느 대학도시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겪은 어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뛰어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래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담을 읽다 보니 요즘은 백 여 개 회사를 지원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이 준비한 「독일 취업 경험담」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작지만 힘찬 응원을 보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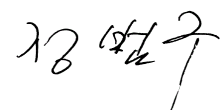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이라 일컬어지는 독일에서도 IT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인재의 우수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만 잘 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독일의 우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8편의 경험담은 한 편, 한 편 독일에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각자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에 불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 실린 경험담들이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독일 취업 경험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대사관은 양질의 독일 취업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독일 취업 경험자 분들과 작품 심사를 위해 봉사를 해주신 외부 심사위원 네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열성에 찬사를 보내며, 사랑하는 가족과 선생님, 선배,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 정범구



## 목 차

1. 담대하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세계인 .....	1
2. 30 대에 전공 전환 독일 IT 취업 성공기 .....	10
3. 육아 후 재취업 성공기 .....	17
4. 독일 건축설계 분야 취업 후기 .....	23
5. 한 걸음 한 걸음 독일로 나아가기 .....	39
6. 영어로 독일 취업 성공하기 .....	44
7. 3 개월 취업활동 그리고 3 번째 회사 .....	48
8. 보통사람의 독일 유학 및 취업 수기 .....	54

# 담대하게 두박두박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인

## 시작하며

독일에서의 취업 경험담을 쓰려 하니 감회가 새롭다. 나의 수기가 독일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4 년 반 동안 독일에서의 어학, 학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 독일에 오게 된 동기 - *WHY GERMANY*

나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행 및 컨설팅 회사, 독일계 자동차 부품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독일인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식과 분위기, 균형 잡힌 개인의 삶과 직업적 삶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독일로의 도전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어학 - 시작이 반 이상이다

2014 년 7 월, 독일에 도착해서 처음 한 것은 어학원 등록이었다. 캐나다 영어연수 등의 경험으로 영어 의사소통에서는 자신이 있었으나, 독일어 수준은 제로였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의 한 중소도시 Würzburg 에서 일 년 반 정도 독일어 집중 어학 강좌와 독일의 문화, 역사, 법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이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독일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시각과 입장이 되어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생활에 서서히 적응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될 때쯤, 본격적으로 금융 MBA 과정을 시작할 대학교와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Coburg 에 있는 대학교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된 강의들로 커리큘럼이 구성된 금융특화 MBA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과정 대표 교수님께 지원서를 보냈고, 대면 인터뷰를 한 후 해당 학기에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학 공부를 시작으로 독일 생활에 적응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향한 힘찬 걸음을 순조롭게 이어갔다.

#### **학업 - 우물 안 개구리, 우물에서 벗어나다**

독일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놀랄 만큼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다. 내가 전공한 금융 MBA 과정은 영어와 독일어를 기본으로 진행되며, 독일인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소규모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금융 및 경영과 관련된 모든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대표, 회계사, 변호사 등의 실무자가 교수진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전공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 행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도 주어졌다.

4 학기 때에는 세계 1 위의 화학회사 BASF 본사 그룹 재무부서에서 6 개월 간 인턴을 할 기회도 얻었다. 독일 최고의 기업에서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열린 소통을 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직급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뒤에서 지지해주는 리더들의 지도력이었다. 예를 들면 나의 경우에는 인턴이라는 직급에도 불구하고 전략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내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안하고, 부서 및 조직 최고 지도자들과 정기미팅을 하며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독일 기업의 업무적 특징은, 유연한 조직문화, 직무 중심의 조직 구조, 효율적인 의사소통, 여성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개인의 삶과 직업적 삶의 조화 그리고 후배를 양성하는 리더와 멘토의 훌륭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한다.

### 입사 지원 - 도전과 불안 그리고 실패

인턴 과정 및 논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쉽지 않게 성취했기에 더욱더 값진 경험이었다. 졸업을 기점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 (영문, 독문) 등은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 구직 사이트 및 메신저 (Stepstone, Indeed, Xing, LinkedIn etc.)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였다. 50 군데 이상을 지원했고, 면접을 진행한 대표적인 기업은 다음과 같다.

- BASF, Deutsche Börse, Deutsche Bank, Allianz, Daimler, KPMG, BNP Paribas, BOSCH, Porsche, Schwarz, Valeo, Compu Group, Joyson

Group, John Deere, HILTI, GE, Heraeus, Zalando, Beletric, Woori bank, Samsung, LG, Kia etc.

Finance, Controlling, Business Management 등 다양한 직무와 직급에 지원했고, 대부분 기업은 영어와 독일어 구사가 가능한 지원자를 찾고 있었다. 간혹 지원자가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갖고 있다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다른 포지션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는 서류통과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으나, 면접 과정에서 끊임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초반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오만과 오판의 결과였다.

### 독일의 채용 시스템과 면접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독일기업의 채용 시스템은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업, 직무, 직급에 따라 채용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시채용 방식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2번 혹은 3번의 면접이 진행된다.

실무자급 면접에서는 주로 업무 역량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 학업과 업무 경력에 대한 깊이 있고 자세한 질문을 다루고, 임원급 면접에서는 인성, 자세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다. 실무자급 면접은 지역적 거리 문제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이 전화나 스카이프를 통해 면접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면접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도 철저하게 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각각의 면접 전에

이메일로 면접관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 사전에 LinkedIn 등을 통해 면접관의 기본적인 이력을 파악하고, Kununu 혹은 Glassdoor 등의 사이트에서 전·현직 근무자가 작성한 각 기업의 평가를 참고하여 면접에 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독일 대기업을 신입직 경우에는 회사 내 자체 평가센터에서 직무적성 능력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다음 평가시험 통과자에 한 해 실무 면접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상대적으로 경력직은 입사 지원 후 서류 통과가 되면 바로 실무자급이나 임원급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나의 경우에는 독일 자동차 기업 Daimler 실무 / 임원급 면접에서 30 분 정도 Controlling 과 관련된 5 문항을 서술식으로 푼 다음, 보드를 이용해 면접관들 앞에서 독일어로 30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제를 주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한 과제였고, 이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지원자의 업무 관련 지식과 발표 및 설득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다양한 기업과 면접 진행을 했고, 합격과 탈락을 반복하며 장거리 마라톤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종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마음은 초조해졌다. 초반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내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새 예민하고 불안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개월간 혼자 구직 준비를 하며 지치기도 했고, 실질적인 조언이 절실했다. 그래서 채용 면접 코치와 관련된 책과 온라인 프로그램, 트레이너 등을 찾아 독일식 면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갔다. 나의 경우에는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 등을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면접의 주요 실패 요인임을 깨달았다.



독일의 채용 시스템, 특히 면접 과정은 한국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면접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세일즈하며 자신의 강점,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을 정확히 표현하여,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최고로 적합한 인재임을 마케팅하는 과정이다. 독일식 채용 면접을 조사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지원자는 “Quality Interview”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접관의 직간접적인 모든 질문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희망 업무와 직급에서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즉, “Validität, Reliabilität, Objektivität”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이 세 가지를 명심하며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본인이 왜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자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으면 본인이 했던 경험과 경력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며, 희망 직무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관과 지원자는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면접 진행을 한다. 지원자는 자신이 면접관과 같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임을 혹은 전문가가 될 인재임을 최대한으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성공적인 면접을 이끌어가는 데 기본인 것이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질문 (예 : 결혼 및 가족계획, 혈액형 타입 등)에는 대답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 당당하게 의사 거부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을 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독일은 토론문화가 특히 발달한 국가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독일인들에게는 문화 그 자체인 것이다. 면접에서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에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는, 지원자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당당하게 면접관들에게 회사와 업무 관련 궁금한 점 등은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을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물론 면접하기 전과 후에도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관심도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외우기식 답변은 지양해야 한다. 독일 기업은 지원자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단순한 질문에도 면접관의 의도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초반에는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 예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워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질문에 꼬리를 잇는 또 다른 질문에 유연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당황하게 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진실하게 솔직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과 독일의 채용 방식 사이에는 많은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구심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시작 후 8 개월 만에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는 다수의 기업 (Woori Bank, Daimler, Bosch, Samsung 등)에 최종 합격 결과를 받아, 고용 계약서를 검토하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셀 수 없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실패를 교훈 삼아 개선하며, 꾸준히 도전한 결과였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와 준 나 자신에게 격려를 해 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고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하고, 고용 계약서는 독일인 지인이나 관련 법을 잘 아는 분과 신중히 상의하여 살펴본 후, 최종 결정을 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주독일대사관 및 총영사관 웹사이트, 코트라 무역관 그리고 기타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외 취업에 유용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 마무리하며 - 초심, 일심, 정심, 성심 그리고 하심

지난 4 년 반을 되돌아보면 타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나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꾀했던 시기였다. 도전하고 실패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힘들 때마다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로 다시 일어서며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얻은 삶의 지혜와 한 뼘 더 성장한 자아는 보상으로 주어졌다.

나는 구직 기간 7 권의 노트를 사용했고, 각 기업과의 면접 전후에 작성한 워드 파일은 50 개 이상이다. 끊임없이 기록하고, 분석하며 개선 방향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하면서 겪는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것이다. 혼자서 준비하며 아쉽고 부족했던 점을 상기하며, 실질적인 조언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나아가며 성장한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성하며 도전을 지속한다면, 더불어 나아가는 세계인이 되는 길은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외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이 건승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끝)

## 30대에 전공 전환 독일 IT 취업 성공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경영대를 졸업하였고, 독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석사 후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독일 공대 대학원 오퍼를 받고, 2주일만에 정리하고 독일에 온지도 어느새 3년차네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취업했는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저는 다름슈타트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대, IT니까 취업된거네' 라고 말하면 그게 맞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도 IT 분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은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학부 때부터 공대생이 아니기도 하고, 꽤 늦은 나이에 인생 2회차 시작하고자 독일에 와서 이런 성과라 제게는 더욱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영업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한국나이로 33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이였지만 독일 대학원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석사를 2년간 공부한 뒤 운 좋게도 바로 취업이 되었네요.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1월 현재 3개월차입니다. 석사 때 공부와 회사에서의 소통은 주로 영어로 하고 있고, 저는 아직 독일어자격증이 없습니다. 학교 독일어 수업에서 A2가 마지막 레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험이 공대 백그라운드를 지니신 분들뿐만 아니라 독일 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께(특히 30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취업 과정과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문과출신 공대 석사]

문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전공을 바꾼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은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진학 당시 저는 한국나이로 33살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관련 학부 전공 없이 IT쪽 석사 진학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경우는 두 군데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퍼는 오퍼고 공부는 공부지요. 대학원에서는 우선순위를 학과 공부에 두었습니다. 인간관계나 학교 행사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만 빼고는 최대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무엇보다 문과출신이고, 프로그래밍, 수학 같은 이공계 기초 소양이 무척 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첫 학기에 대학원 기초수업 들을 때도 정말 꾸역꾸역 힘들게 따라갔습니다. 과정은 석사였지만 선형대수학 같은 학부 수업도 들은 건 물론이구요.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남들은 2-3시간이면 끝내는 과제를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라 새벽 네 다섯 시까지 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유튜브, 코세라, 칸아카데미와 같은 사이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잠을 안 자가면서 한 건 아닙니다. 새벽에 공부하는 게 편해서 새벽까지 했을 뿐이지 30대에 잠 안 자면 몸 축나요. 과제는 많고 속도는 느리니 첫 일년 정도는 맘 편히 보낸 주말이 많지 않았습시다. 일년이 지나고 나니 프로그래밍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네요.

### [지도 교수님의 도움]

생각해보면 지도교수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지도교수님은 정말 중요하지요. 제 지도교수님은 이탈리아 분이셨는데 정말 너그러우면서도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오피스에 계실 때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항상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목이 인기 과목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찾는 교수님은 아니셨고, 그래서 오히려 제게 더 많이 신경써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인기과목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30분 단위로 계속 약속이 있을 정도로 바쁩니다. 학생과의 소통도 다른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메일로 약간은 격식있는 방법을 좋아하시는 반면 제 지도교수님은 메신저로 소통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메신저로 제 논문과 관련된 링크를 날려주실 정도로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전 정말 저희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 [어떻게 취업했는가- 과정]

취업도 교수님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졸업논문을 쓴 뒤 교수님께 회사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저를 추천해주신 건 아니고, 교수님이

알고계신 회사 이름을 몇 개 던져 주시더군요.

제 논문이 데이터와 화성 관련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우주 관련 회사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긍정적인 답은 없었고, 이 회사는 오픈된 관련 포지션이 없어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링크드인에 포지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공고를 읽고 있었더니 이 회사 인사담당 역시 제 프로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에서 누가 내 프로필을 보고 있으면 알림이 뜹니다) 이 때다 싶어 인사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경력직을 찾고 있다며 제 경우는 해당 분야 경력이 없으니 인턴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면접을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을 때도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고, 그걸 아시는 지도 교수님이 이 회사를 추천해 주셨다 라고 했더니 무척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교수님과 연락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는 간단한 스몰 토크와 함께 기술 면접을 봤습니다. 저를 머신 러닝 엔지니어로 뽑고자 했기에 머신러닝 관련한 제 경험을 묻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유려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기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빼놓지 않고 대답했기에 다음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가 했던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그 때 어떤 문제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 왜 그 방향을 택했는지를 Github등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대면 인터뷰에서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의 프로젝트 관련 시각 자료를 만들어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제 타블렛에 제 논문 포스터를 담아가서 설명했고, 제 프로젝트와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성이 좋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구요.

### [취업은 적당히 어렵다]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과 독일의 취업 난이도를 비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 안된다고 한탄하면 이런 질문을 듣는다고. “100군데 지원 해봤어?”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30군데 지원해봤어?” (사람에 따라 50군데, 100군데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독일도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언어, 문화적 차이까지 생각하면 한국의 취업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관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합격하기까지 저도 두 달간 약 40개 회사에 지원했고, 인터뷰 요청은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조바심내지 않고 항상 관대하게 기다려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될까 안될까에 신경쓰면서 지원하다 보면 정말 누구나 모시고자 할 정도의 인재가 아닌 바에야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거절당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기계적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두 회사 지원이라는 목표를 잡고 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 하루 두 회사는 무조건 지원했습니다. 공고에 따라 하루에 네 개 정도까지 보낸 날도 있네요. 물론 당연하지만 Job Description에 따라 나름 CV와 커버레터를 계속 업데이트 했습니다.

### [한국과 거의 같은 CV 팁]

CV에 대해 팁을 넣자면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 1. 질문의 여지가 있는 이력서를 쓸 것

- 1) 너무 자세하게 시시콜콜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2) 최대한 간결한 단어를 쓰고 생략할 건 생략하세요. 지원 직무와 관련없는 경력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 3) 인터뷰어 입장에서든 뭔가 빠졌다 싶어야 질문할 거리가 있거든요.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 2. 최대한 정직하게 쓸 것 - 저는 엔지니어 직군이지만 어설프게 할 줄 아는 거 써봤다가 물어보면 난감하더라고요.

#### 3. 직무관련 주요 키워드 찾는 법

- 1) 링크드인 등에서 해당 직무와 같은 사람 찾아보기, Job Description 상세히 뜯어보기, 회사 홈페이지, Xing, Stepstone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같은 JD 찾아보기(사이트마다 JD 를 약간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독일에서도 CV 내 키워드로 필터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3) 특히 큰 회사들이 그렇구요. 그래서 직무관련 주요 키워드들은 어떻게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또한 IT 직군은 프로젝트가 무척 중요한데 본인의 소스 코드와 프로젝트 내용들을 Github 등에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해당 직군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마치며...]

글을 쓰거나니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유학생할 중간에 독일로 건너왔고,

가족이 있어서 인지 몰라도, 회사에서 인턴쉽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덕분에 블라우카르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네요. 가끔 커뮤니티를 보면 문과 출신인데 IT쪽으로 독일에서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대부분 부정적인 답글들이 많이 달리던데,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분들께 긍정적인 사례로 이 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 곳곳에 있는 짤막한 팁들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

## 육아 후 재취업 성공기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독일 취업 경험담 공모를 보고 제 경험이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분들, 그 중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로 이주해 온지 거의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주 만 3.5년이 되던 작년 10월 Bonn에 있는 (회사명)이라는 특허분석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구직 기간은 8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총 2곳의 회사에 각각 3회씩, 총 6회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셋(만 7살, 5살, 3살)을 둔 엄마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회사의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독일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첫아이와 둘째 아이를 중국에서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세째 임신 7개월때 뉘른베르크로 이주해왔고, 2017년 남편이 쾰른/본 근처로 이직하면서 현 거주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첫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약 8년 정도 한국과 중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첫아이 출산 후 육아문제에 부딪혀 퇴사를 했고, 그렇게 둘째와 셋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경력단절은 전적으로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였던 것이지만,

재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가 겪고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구직시 애로사항>

### 1. 언어

구직활동을 해보니 독일에서는 독일어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가 독일어보다 편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곳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구직 시장에 나온 Job 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독일에도 Adidas, Puma, Trivago 같은 곳은 이력서도 영어로 지원할 수가 있었고, Deutsche telecom 같은 경우 일부 지원부문에는 영어 사용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런 International 한 기업에서도 기본적인 독일어 구사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뉘른베르크에서 1년 동안 C1 레벨까지 독일어 수강을 했고, 비즈니스 회화가 능통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 독일어는 가능하도록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 2. 육아 대안

면접을 보다보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일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하는 질문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때 받은 느낌은 이 부분을 제 약점으로 꼬집으려한다기 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배려해줄수 있으나 너의 일과 육아 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들어보고자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의

강한 지원이 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OGS 및 유치원에 가고 있고, 추후 베이비 시터 고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 3. 자신감 상실

이 부분이 사실 항상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요. „막연하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날 원하는 곳이 있을까? 내가 아직도 취업시장에서 가치가 있을까? 독일의 실업률 지수는 점점 낮아진다는데 내 자리는 왜 없는걸까? „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의지를 다잡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이제 4개월 되었는데 과거 7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개인적 환경(육아 및 가정)이 쉽지 않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근무환경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거라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 취업시장에서는 나이 많은 새내기이고 아직 수습기간 중이라 허둥지둥하고 실수투성이 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좋은 직장동료들을 만났고 많이 도움 받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빨리 이해되던 것들이 지금은 그 속도가 더더진 걸 실감하지만, 마라톤 한다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및 경력 등이 상이해서 제 경험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직 팁>

### 1. 이력서 작성 및 서류전형

형식은 자유롭게 적되 본인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어 능력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생년월일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을 구술했고, 그 이후에 경력란을 넣었습니다. 이력서는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했고 요약본과 상세본으로 별도로, 각각을 영어와 독일어로 준비했습니다. 어학능력이나 자격증, 졸업증명서도 첨부파일로 제출했는데, 면접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원하는 보직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접관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구두로 미리 강한 인상을 한번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면접

사실 서류 통과 후 면접 기회가 오기까지도 쉽지 않은데요, 일단 면접 기회가 오면 미리 예상문제를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는 게 면접 당일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수월히 대답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면접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면접에서는 겸손이 미덕은 아닙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전 다시 면접관에게 메일이나 전화 연락해서 내가 왜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첫 번째 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면접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절실하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3. 사회활동 참여

제가 재취업을 마음먹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7년의 경력 단절기간을 어떻게 설명할까 였습니다. 당연히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중국에서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에서 현 거주지까지 이사도 오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걸 이력서에 쓰고 면접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이 부분을 사회활동을 이력서에 적으면 좋겠다 싶어, 모집에 지원하여 실제로 1개월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 리히텐슈타인 대표단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 저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육아를 하는 동시에 나름의 준비를 했고, 그 일환으로 독일어 어학공부도 하고, 올림픽 자원봉사도 했다고 어필했습니다. 올림픽은 국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면접 때마다 면접관 모두가 관심이 있어했던 토픽이고, 긴장감 있는 면접에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는데, 이제 글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저의 경험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및 독일로 이사오시면서 경력단절 되셨던 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일하면서 한국분들 많이 만나뵙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독일 건축설계 분야 취업 후기

글을 쓰기에 앞서, 나의 취업 경험담이 꼭 정답이 아님을 먼저 말해두고 싶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독일에 취업 된 과정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쓰여진 이야기는 정답이 아닌, 그저 하나의 유익한 정보로서 읽혀지길 바란다. 또한, 이 글을 읽으실 분들과 필자의 간극을 조금 더 좁히고자 취업 당시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필자는 취업 당시 나이 만 33세로 한국에서 건축학(5년제) 학사와 건축학 석사(2년)를 전공 후, 서울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3년 조금 넘게 건축가로 실무를 쌓았다. 만3세 사내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 유학을 목표로 독일에 입국했다. 운이 좋게도 독일에서 별도의 학위 과정 없이 취업을 해서 현재는 슈투트가르트의 (회사명)이라는 독일 설계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 1. 취업 준비의 시작, 독일어.

독일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독일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독일어로 내 생각을 100% 전달하는 것이다. 아마도 독일에 사는 이상 독일어는 평생 공부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필자는 본래 석사 유학을 하기 위해 독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독일어를 꼭 정복해야만 했었다.

필자는 독일을 현지 어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배웠고, 초급(A1)부터 고급(C1) 단계까지 총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중급(B2) 단계에 접어들니 알파벳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학원생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수업은 점점 따라가기 힘들었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나마 겨우 따라가는 정도였다. 마지막 C1단계까지 재수강 과정 없이 한번에 통과하긴 했지만,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크게 실망했다. 이 때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독일어 중급과정 이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들보다 뒤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독일 현지 어학원의 독일어 과정은 철저히 유럽사람들의 기준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언어뿌리가 전혀 다른 아시아권 학생들이 고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니 앞으로 독일 어학원을 다니실 예정이시라면, 열심히는 하되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해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일기형식으로 독일을 공부하며 느낀 감정들을 글로 적었었다. 글을 쓸 당시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한 두 달 뒤,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보며 독일어가 조금이나마 늘었음에 위로를 받았었던 것 같다.

또 독일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한정된 자금과 아이 때문이었다. 필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유학길에 올랐었다. 어학원에서 재수강을 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손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과 소통을 위해서도 독일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되돌아보면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독일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 2. 본격적인 구직활동 : 이력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각종(?) 증명서

C1까지의 어학 과정(약 10개월)을 마치고, 대학원과 건축설계사무소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건축 설계직 구인소식은 Competitionline.com, Baunet.de, Xing.com을 통해 알아보았다. 대략 20군데 정도 설계사무소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 중 5군데의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다. 면접 연락이 온 이후부터 대학원 진학보다는 현지취업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규모가 작은 곳부터 큰 곳까지 두루 면접을 보았다. 운이 좋게도 두 군데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통보를 받기까지 Anschreiben(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데 독일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몇 번의 첨삭을 받았고 면접 전에는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조금 더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C1까지 어학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독일어를 완벽히 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완벽하게 말을 할 순 없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독일어가 나오는 연습을 했었다.

회사에 온라인으로 지원서류를 보낼 땐 PDF 파일을 3개로 구성(이력서+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어학 및 공모전 수상증명 등)하여 보냈고, 총 용량이 5MB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력서는 한눈에 보기 쉽게 ‘표 형식’으로 작성을 하였다. 자기소개서는 ‘왜 독일에 왔는지, 한국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당신의 회사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등을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때론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수님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자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이름까지 정확히 서술하였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Anschreiben)는 여러 군데 회사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락(대략 3~4문장 정도)만 각 회사에 맞춰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였다. 필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원어민 독일인 친구와 함께 작성하였고 좀 더 매끄러운 표현으로 첨삭을 받았다. 덕분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꼭 원어민에게 적어도 세 번은 첨삭을 받길 추천한다.

건축설계의 경우, 취업 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자는 학생 프로젝트부터 실무프로젝트까지 골고루 섞어서 제출하였다. 필자는 이미 한국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텍스트만 독일어로 수정한 후 그대로 제출하였다.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동료들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구경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느낀 것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의 건축작품은 웬만한 독일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 3. 독일어 면접 준비

앞에서 언급했듯 5군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결과라, 면접 전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각 회사와 면접 볼 날짜와 시간을 이메일로 정하였다. 면접 전까지 뭐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대략 10가지 정도(왜 지원했는지, 어떤 건축가를 좋아하는지 등등)의 예상질문을 스스로 정리해서 질문 당 3-4문장으로 모범답변(?)을 만들었다. 추가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발표 스크립트도 작성하여 달달 외웠다. 또 이 시기에 독일인 친구와 더 자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 사실 10개월 정도 공부한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어 면접을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면접자가 나에게 질문할 때는 명확한 독일어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고 대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내가 답변하고 나서 돌아오는 예상 못한 독일어 리액션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때로는 알아듣는 척을 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른 화제거리로 재빨리 넘어갔다. 그렇게 첫 번째 면접을 마치고,

또 다른 회사들과 면접을 진행하면서 점점 독일의 면접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한국의 면접과는 다르게, 정말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자리(?)로 느껴졌기 때문에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또 여러 번 면접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공짜로 독일어 회화수업을 들으러 간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면접에 앞서 비중 있게 준비한 것은 포트폴리오 작품 설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하는 회사마다 모두 내 포트폴리오 작품설명을 요구해왔다. 다행히 이 부분은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설명했다. 문제는 내 설명에 대한 상대방의 질문이었다. 가끔 알아듣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으나 ‘이해를 못했으니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았다. 면접에서 내가 중요하게 느낀 것은, 언어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누가 봐도 검은 머리의 동양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독일어를 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부족한 언어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면접볼 때 정장으로 갖춰 입었다. 지나치게 예의를 갖춘 느낌도 있었지만, 첫 이미지인 만큼 깔끔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 나처럼 넥타이까지 멘 정장차림으로 오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깔끔한 셔츠와 구두, 자켓 정도면 면접 복장으로서 충분한 것 같다.

#### 4. 독일에서 건축가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얼떨결에 취업을 하고 나니, 앞으로 건축가로서 독일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낮추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꼭 취업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필자도 회사에 지원하기 전엔 ‘독일에서 학위도 없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들었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독일의 건축경기는 굉장히 호황인데다가 건축직은 현재 독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군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추측하건데 전 세계적으로 건축가가 부족직군인 나라는 독일이 유일할 것이다. 이 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약간의 실무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독일어 실력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사에 지원해 보시길 바란다. 아마도 머지않아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아래 독일 설계사무소에서 면접을 본 후 기록으로 남겨둔 면접후기를 추가로 덧붙인다. 아래의 기록들은 몇 군데 독일 건축설계사무소들과 면접을 보자마자 남긴 일기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필자가 느꼈던 감정과 상황을 아마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다.

## 5. 부록 - 독일 설계사무소 면접 후기

### *2018. 07. 05. 첫번째 설계사무소와 면접 (회사규모 : 작음, 합격여부 : 최종 합격)*

독일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고 왔다.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 떨어져있는 곳이어서 위치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한국에서 처음 독일로 올 때, 정장을 챙길지 말지 고민 끝에 구겨 넣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꺼내 입을 줄은 몰랐다. 어쨌든 오랜만에 넥타이도 꺼내고, 정장도 혼자 다려서 한번 걸쳐보니... 뭐랄까.

신입사원 지원자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신입사원 때 입었던 정장과 넥타이를 그대로 걸치면서 그 때 나에게 왔던 행운이 또 한번 왔으면...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30 분 먼저 회사 앞에 도착했고, 예상 질문과 예상 답안으로 써놓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회사에 들어갔다.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물 한잔과 함께 면접이 시작되었다. 먼저 내 소개를 부탁해서 짧게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었는지 물었다. 뭐... 완벽한 독일어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 알아듣는 눈치였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회사 소개와 그간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맡게 될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통 뭘 말인지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다. 제일 중요한 Gehalt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잘 들었다. 보통 이 바닥(건축설계)에서 초봉으로 받는 연봉을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가 받는 평균적인 연봉이다” 라며 하나의 정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봉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메일이든 전화든 상관없으니 보내라고 한다. 그리고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Nach dem Juli kann ich hier arbeiten“ 7 월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더니 내 이력서에 Ab September(9 월부터) 라고 적었다.(구인공고에 일은 8 월 혹은 9 월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미 적혀있었다.) 아마 8 월은 휴가기간이라서 아예 제외시킨 것 같다. 그리곤 내가 오면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를 다시 설명하고, 예시 도면들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회사 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1 주에 40 시간의 노동시간과 야근을 했을 경우, 휴가를 추가로 준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 말고 작은 회사에서 더 바랄게 있을까...

그리곤 사무실을 짧게 투어를 하고, 독일어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 “내가 외국인들하고 일했을 때 다들 독일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 년 공부한 거 치고는 꽤 잘하네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나선 준비한 말을 내뱉었다. “내 독일어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할겁니다. 독일어에 대한 흥미도 크고요.” 훈훈한 칭찬과 함께 회사 밖으로 나왔다. 면접 전에 독일인 친구와 연습을 해서.... 생각보다 쉽게 면접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세상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첫 번째 회사와 면접을 아주 잘 마쳤다.

#### **2018. 08. 01. 두번째 설계사무소와 면접 (회사규모 : 큼, 합격여부 : 최종 불합격)**

또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보고 왔다. 첫 번째 면접 본 회사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몇 군데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 중 두 곳과 면접일을 잡았다. 미리 선정해놓은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몇 번이고 혼자서 읊조렸다. 열심히 연습하고 갔음에도 예상질문과 실제 질문은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 이런. 왜 연습했나 싶다.

면접 복장은 늘 그렇듯, 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풀세트로 셋팅했다. 거의 한 달 여 만에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렸다. 거울을 보고 애써

웃어보지만 어색하기 그지 없다. 추가로 네모난 백팩을 등에 달고 다니면, 영락없는 한국인 신입사원 출퇴근 모습이 완성된다.

약속한 시간보다 30 분 먼저 회사 앞에 도착했다. 이 땡벌에 자전거 타고 오느라 젖은 셔츠를 바람에 말리며, 쓸데 없이 외운 독일어 문장들을 다시 읊조려보았다. 발음이 꼬인다. 긴장했나 보다. 나름 큰 설계 회사라고 사옥도 지들이 설계해서 새로 지었다. '사옥이 좋으면 뭐하나, 회사가 좋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회사 들어가려고 문을 당겼다. 안 열린다. 아... 잠겨있구나. 초인종부터 눌렀어야지... 촌스럽기는...

초인종을 울리며 말했다. “저기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 문을 열어준다. 잠깐 앉아있으란다. 새로 지은 사옥은 크진 않지만, 꽤나 뼈까뻔쩍하다. 진입하자마자 작은 아트리움이 있고, 지하에 마련된 공개 세미나실이 보인다. 아래에서도 내가 보인다. 웬 정장 입은 머리 무스 바른 동양인 남자가 백팩 매고 의자에 앉으니 모두가 날 쳐다본다. 민망스러웠다. 하필 이 때 세미나를 하는건지...

세미나가 끝나고 나와 면접을 볼 담당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자분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남자분과 단 둘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남자의 직책은 팀장이었다. 그와 함께 면접보기 전, 짧게 회사투어를 했다. 일하는 사람들과 잠깐 인사도 하고, 스욱 둘러보니 여러 가지 디자인 안들이 보드에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아, 여기가 건축가들을 갈아서 만든다는 현상설계팀(공모전팀)이구나.

짧게 업무공간 투어를 마치고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갔다. 이미 내가 보낸 지원서를 꼭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와 면접 본 팀장은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그 덕에 그는 내가 일했던 회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건물들을 설계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또 학생 때 입선했던 공모전의 심사위원 이름을 보더니 “이 사람 매우 좋은 건축가예요”라고 말했다. 이름을 보니 스페인 건축가 같은데, 난 단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건축가였다... 운 좋게 하나 얻어걸렸다.

그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며 립서비스를 조금 해주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떻게 작업했는지, 팀 작업인지 개인 작업인지, 어떤 개념으로 디자인에 접근했는지 등등... 몇 가지 질문들을 했다. 대답은 역시 1년차 독일어 실력으로 들이댔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이 사람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인건지, 고개를 끄덕이긴 했다.

그 다음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해 협상했다. 그리고는 짧게나마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팀장은 내가 한국에서 3년의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현상설계(공모전)부터 실시설계(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의 경험이 있다는 걸 노트에 적었다.오! 이거 더 세게 불러도 되겠는데? 만약에 이 회사에서 나와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미친척하고 연봉을 꽤 세게 부를 생각이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인데, 이 회사는 큰 회사답게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다. 크게 공모전하는 팀, 실시설계를 하는 팀으로 나뉘는 것 같다. 난 작은 프로젝트라도 혼자서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이 회사는 대부분이 팀 작업이라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미친척하고 제안할 Gehalt 를 수용한다면 일해볼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곳에서 일하는 게 과연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업무프로세스는 공모전에서 당선된 후, 그 프로젝트가 실현될 때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회사의 특징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독일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회사의 공식언어는 독일어와 영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영어를 구사할 줄 아냐는 말에 “문제없다.” 라고 일단 지르긴 했는데.... 혹시나 내 영어 밑천이 드러날까봐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전체적으로 면접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한가지 찝찝한 것은 나의 독일어 실력이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합격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일단은 기다려봐야 한다.

**2018. 08. 07. 세번째 설계사무소와 면접 (회사규모 : 중간, 합격여부 : 최종 합격, 현재 재직 중)**

지난 주 면접을 본 대형설계사무소에 최종 탈락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건축설계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자는 이메일을 받았었다. 그리고 방금 면접을 보고 집으로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글을 써 내려가야겠다.

이 설계사무실은 Stuttgart 시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우리 집에서 U 반과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한다. 매일 자전거만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조금

낮설었다. 또 버스시간이 30 분에 1 대, 혹은 2 대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혹여나 면접시간에 늦을까봐 생각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해야 했다.

“안타깝지만 Herr CHOI 는 우리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지난 주 면접 본 회사에서 날라온 메시지가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면접이 조금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약속시간보다 40 분정도 먼저 도착했다. 늘 그렇듯 회사주변을 괜히 한번 빙 둘러서 걸어본다. 일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 곳이 있는지 한번 훑어본다. 시내가 아니라서 건물들이 낮고, 초록이 많이 보인다. 면접 10 분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인 건축가 한 명이 “니하오“라고 인사를 한다. 내가 중국인인줄 알았나 보다. 니하오의 대답으로 “할로“ 라고 인사하고 회사로 들어갔다.

이 회사도 자신들의 사옥을 직접설계를 하였는데, 건물의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층만을 설계사무소로 사용한다. 높은 천정과 큰 아트리움, 그리고 채광이 잘되는 커다란 창문들...일을 하기엔 굉장히 쾌적한 조건의 공간들이 눈에 들어온다.

실습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친구가 간단히 회사를 안내하며 프로젝트를 설명해주었다. 뭐...잘 못 알아들었다. 이 회사 역시 현상설계하는 팀, 그리고 실시설계하는 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역시 건축설계를 하는 회사답게 책상 위엔 스터디 중인 건축모형들과 3D 이미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적당히 정리가

안되어있는 책상과 적당히 널부러진 건축 모형들을 보니, 역시 건축설계사무소 다운(?) 모습이었다.

회사를 거의 다 구경했을 때 즈음, 이 회사 설립자와 직접 면접을 시작했다. 간단히 악수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등을 모두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내 자기소개서에 밑줄과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체크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가 새해양계 바랜 이 베테랑 건축가는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내 프로젝트들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왔는지 천천히 설명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팀장으로 보이는 건축가도 함께 동석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 설명들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나에 대한 소개와 작품설명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들로 면접 시간을 채워나갔다.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도 서스럼없이 해주었다. 고마웠다.

“어떤 건축가를 좋아하는지?”

“내가 일했던 회사는 어떤 회사였는지? 인원은 많았는지, 적었는지?”

“현상설계를 주로 했는지, 실시설계를 주로했는지?”

“회사 근처로 이사올 생각이 있는지?(농담으로)”

“회사안내를 받을 때, 아시아 사람들과도 마주쳤는지?(중국인들이 2명정도 일하는 것 같다)”

“우리회사는 어떻게 알게됐는지?”

“왜 슈투트가르트로 오게되었는지?”

“독일어는 얼마나 배웠는지?”

“한국에서는 설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dmp 라는 회사를 아는지?”(내가 다녔던 회사는 아니지만, 몇 주 전에 dmp 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모양이다)

“와이프도 건축을 전공했는지, 아들은 몇 살인지?”

“건축가로 몇 년 동안 일했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등등... 질문은 위에 적은 것보다 더 많았고, 대화는 재미있게 이어져 나갔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내 독일어였다. “아, 정말 잘하고 싶다. 독일어!” 한 가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 베테랑 건축가는 내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파일이 아닌, 책자로 자세히 보고싶다며 내 포트폴리오를 복사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렇게 그는 내 포트폴리오를 컬러로 다 복사해갔다. 그에게 선물도 받았다. 1988 년 설립이후로 디자인 했던 모든 건물을 모아놓은 회사의 포트폴리오 책자였고, 그렇게 면접은 마무리 되었다.

### **2018. 08. 08. 세번째 설계사무소와 2차 면접 (회사규모 : 중간, 합격여부 : 최종 합격, 현재 재직 중)**

어제 면접을 본 설계 사무소에서 메일을 받았다. 두 번째 면접을 보자는 제안이었다. “한번의 면접도 부담스러운데, 2 번째 면접이라니...” 이미 말할 건 다 말했고, 질문할 건 다 질문했는데 뭘 더 본다는 것인가? 스스로 뭘 준비해야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선물로 받은 그들의 작품집을 훑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건물을 설계했는지... 간략히 메모하는 것으로 2 차 면접을 준비했다. 결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독일에서의 면접은 지식의 깊이나 행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틀 만에 다시 그 설계사무소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이틀 전 면접을 봤던 대표건축가 A 와 그리고 또 다른 대표건축가 B, 팀장, 나까지 4 명이 함께 이야기했다. 오늘 처음 만난 대표건축가가 이틀 전 복사해간 나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채용 이야기를 했다.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저희는 당신과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유일한 문제는 독일어예요.”

잘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덕에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 독일어가 문제긴 한데... '앞으로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은 '독일어를 1년 밖에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정도의 적당한 핑계는 이제 먹힐 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나와 동료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걱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게 걱정인걸...

“영어는 어느 정도하나요? 이력서에는 B2 라고 써놨던데... 독일어가 C1 니까, 영어보다 독일어가 더 편한가요?”

“그건 아니예요. 영어를 배운 시간이 더 길고, 듣고 이해하는데는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다만 이력서에 B2 라고 쓴건, 공식적으로 제 언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힘들면, 영어로 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내가 독일어로 혼자서 전화로 업무보고, 외근을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현상설계(공모전)를 우리와 함께 한 두번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팀(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면그리는 단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 건축가B가 제안을 했다. 나도 나쁠 게 없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 어차피 나의 목표는 공모전으로 프로젝트를 당선시켜서 실시설계까지 쪽~  
참여하는 것이었으니까. 공모전의 업무는 다른 분야와 크게 협의할 필요없이  
건축팀 자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실시설계 팀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시공업체, 현장대응, 다른 분야(기계,  
설비, 전기, 소방 등등)와의 협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연봉협상을 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Herr CHOI가 이미 한국에서 3년정도의 경력이 있지만, 그 경력에 상응하는  
역할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독일어를 더 연습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도 당신 경력에  
상응하는 연봉을 주기 힘듭니다. 독일어가 조금 더 유창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연봉협상을 합시다.”

그렇게 연봉협상을 무사히(?) 마쳤다. 물론 첫 번째로 합격한 회사와 합의한  
연봉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연봉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내 삶의 질이 확 바뀌진 않지만,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넘죽 받았다.허허.  
자세한 내용들은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고 천천히 살펴봐야겠다. 한국에서만  
살았던 내가 해외취업이란 걸 하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 (끝)

## 한 걸음 한 걸음 독일로 나아가기

### 독일의 근로 환경에 매력을 느끼다

독일어를 전공한 나는, 독일 교환학생 생활 중 목격한 한국보다 나은 근로 환경 및 문화를 동경하게 되어 독일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KOTRA 프랑크푸르트 지부 인턴에 지원하였으나,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였던 관계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동시에 바로 학교로 돌아가기 보다는 짧게나마 독일 현지에서 쌓아온 독일어에 대한 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휴학 후 괴테 문화원을 다니며 독일어 실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다양한 독일 관련 네트워킹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독일인 친구 및 독일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만난 친구 중 한독상공회의소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고, 추후 그 친구를 통해 한독상공회의소 인턴 자리에 T.O가 생겼음을 인지하고 듣고 지원하여 7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독일은 아니었지만 독일 정부 소속 기관이었으므로 수장이 독일인이며 독일인이 절반인 기업 특성상 독일에서 근무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독일 취업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워가게 되었다.

### 독일 내 한국 기업 (해외법인) 으로의 첫 번째 취업

처음에는 막연히 독일 기업을 목표로 삼았으나, 다양한 research 후 당장은 독일어 실력 등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독일 내 한국 기업도 목표군에 넣었다. 졸업 즈음하여 학교 취업센터로부터 소개 받은 WORLD JOB 사이트에서 매일 같이 구인공고를 열심히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학교에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방문하면 찾아가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

그렇게 졸업을 맞이한 16년 여름, \*\* 계열의 종합물류기업인 (회사명) 독일 법인 함부르크 사무소 해상 수입팀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서류 합격 후 화상 면접 및 본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2016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비자는 한국 독일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독일 입국 및 근무를 시작하였고, 약 6개월 후 워킹비자로 전환 신청을 하여 전환하였다.

물류의 '물'자도 몰랐던 내가 (회사명)라는 큰 국제 물류기업에서 밑바닥부터 물류를 배울 수 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며 물류 분야에 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다면 한국 회사다보니 아무래도 한국 회사 문화가 짙었고, 그 문화와 거리를 두고 싶었던 나는 물류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지 2년여 쯤 된 2018년, 외국회사로의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 동종업계 외국 기업으로의 이직

사실 처음 독일에서 일을 시작했을 당시의 목표는 틈틈이 공부하여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으나, 안일하게도 독일어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관계로 자신있는 영어 사용 가능한 포지션 위주로 공략 하였다. 가장 애용했던 경로는 LinkedIn으로, 확실히 경력이 1년반-2년 쯤 되었을 때부터 헤드헌터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또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혹은 새로운 업계로의 도전이나’ 였는데, 이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애초에 물류라는 분야를 원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에 있어 첫 번째 이직이 어찌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스스로를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외향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가장 에너지적이고, motivation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런 관점에서 영업 관련 직무에도 관심이 커졌으나, 아무래도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한 내겐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느껴졌던 관계로 지난 물류의 경력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저의 강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포지션으로 타겟 그룹을 좁혔다. 그러던 중 헤드헌터를 통해 MARKEN 이라는 바이오/제약 특화 물류회사의 logistic project coordinator 포지션을 제안 받았고, 무려 4번의 면접 끝에 최종합격 하게 되었다. 사실 해당 포지션에 근무하기에 나의 경력은 상당히 짧은 편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나의 personality와 판토스 근무 당시 화학 제품군을 담당했던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덕에 비교적 짧은 경력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

마치며..

(회사명) 첫 번째 화상면접 후 적었던 일기의 한 대목이다:

“독일로 가게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고민도 많고 느끼는 점도 많다. 해외취업은 타이밍과 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만약 내가 교환학생으로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있었다면, 초반 3개월은 워홀비자로 근무해야 하는 이 포지션에 지원조차 못했을 거다. 비자문제 등 많은 것들이 얽여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야 한달까.

어제 생애 첫 skype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두 번의 면접이 남았다. 인턴을 제외한 정식적인 첫 구직활동이었기 때문에, 혹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긴 하다. 물론 함부르크 생활에 대한 아쉬움은 남겠지만. 또 결과가 좋더라도 아마 고민은 더 많아질 것이다. 준이민이나 다름 없으므로..

그냥 지금이 그런 나이인 것 같다. 불확실함을 즐기면서도, 그 불확실함 때문에 고민은 많아지는데, 고민한다고 해서 상황이 절대 나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let it be 하며 매 순간에 몸을 내던지게 된달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감정들이 스물여섯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이 아쉽고 그렇다. 방랑하며 살고 싶은 내 꿈이 과연 이렇게나 일찍 이루어질까? 하며 내 삶을 타자의 시선으로 관망하게 되는 요즘.”

사실 해외취업 후 가장 힘든 점은 무엇보다도 타지생활의 외로움과 회사생활의 어려움이 겹쳤을 때,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파고를 겪게 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가족, 친구와

의 교류가 한정적이고, 이는 곧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관계의 한계를 의미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혼자 앓기보다는, 분명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한국에서 지낼 때와 분명 다른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한다면, 해외 근무 및 생활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해외취업이라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관문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모두의 마음을 알기에,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바이다. (끝)

## 영어로 독일 취업 성공하기

제가 3년 가까이 독일에 살면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험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기를 씁니다.

학창시절부터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과한 경쟁에 지쳐있던 저는 독일에 도착 후 구직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전공과 연계된 영어 석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학교를 다니며 전공과 함께 독일어 실력을 늘려 취업할 계획으로 2016년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말해 제 현재 독일어 실력은 독일에 처음 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운 좋게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영어를 회사 내 공용어로 쓰는 (회사명)라는 기업의 Analytics 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지 3달된 햇병아리로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 1) 학교생활

처음 독일에 왔을 때 25년을 한국에서 살다 온 제가 유럽 사람들에 비해 영어나 독일어가 부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때문에 그들보다 성적관리를 조금이라도 잘 하려고 노력했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얼마나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외국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주제 혹은 모여서 노는 방식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금도 업무 자체보다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격이 매우 외향적인 편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그런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곳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학교에서 가졌던 게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2) 서류전형

CV와 커버레터는 미리 써두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겨우 두 세 장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1년 전에 썼던 걸 다시 보면 고칠 점이 수도 없이 보이더라구요. 한국식 이력서와 독일식 CV/커버레터는 형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친한 독일친구와 학교 잡센터의 도움도 빌렸습니다. 저는 인턴/신입 지원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CV는 학력, 장학금 수여내역, working student 경험, 언어/컴퓨터 능력 등으로 대학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주력했어요. 커버레터는 장점을 주저리주저리 나열하지 않고 하드스킬 1-2가지, 소프트스킬 1가지에 경험을 덧붙여 설명하는 정도로만 썼습니다. 참고로 CV에는 독일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어 붙였습니다. 점점 사진을 안 붙이는 게 추세라고는 하는데, 독일 친구 말로는 외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진을 통해 얼굴을 미리 보는 것 만으로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진을 붙이는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업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다 달라서 지원서 하나 작성을 위해 며칠, 몇 시간을 공들여야 하는 한국에 비하면 독일에서는 지원서 복사 붙여넣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인공고를 보면 기업마다 요구하는 스펙이 꽤 분명하기 때문에 CV는 조금씩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지원은 했으나 요구사항과 제 스펙이 부합하지 않았던 곳을 제외하고 70% 이상은 서류가 통과된 것을 생각했을 때, 요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서인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언어실력과 요구되는 스킬만 갖췄다면 단순히 국적때문에 서류가 걸러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3) 면접

면접은 보통 1차에서 전화로 30분정도 스크리닝을 하고, 2, 3차에서 같이 일하게 될 팀원들이나 팀 리더와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케이스 스터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글링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제 이력에 대해 나올만한 질문들을 정리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얘기가 그럭저럭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던 1차에서 탈락. 쉽게 붙기는 힘들 거라고 미리 각오를 하고 있었음에도 폰스크리닝조차 통과 못하고 떨어지니 독일에서 취업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면접을 서너번 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대충 예상이 되더라구요 (보통 미리 준비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면접들을 통해 답변을 더욱 잘 다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던 곳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회사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인데, 면접을 보는 짧은 한 두 시간 동안에도 흔히 쓰는 말로 '케미스트리'가 맞는 게 느껴지는 회사나 팀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면접은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제 대답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고, 이런 리더라면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면접이었어요. 이전에도 면접이라는 건 회사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회사를 평가하는 과정도 될 수 있다는 말을 들긴 했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면접을 여러 번 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구직자 분들도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면접과정에서 회사를 잘 보시고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3년간 살면서 한국에서는 겪어본 적 없는 답답한 일도 많았고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자국어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제 경험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꼭 독일에서의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3개월 취업활동 그리고 3번째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온지 4개월 즈 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2번의 이직 끝에 세 번째의 회사에 아주 만족스럽고 보람차게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취업을 독일에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외국인 아내를 만나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독일어도 못하고 정보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 경험담을 나누기에 앞서 제게 4개월 간 있었던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뒤에 총 3곳의 회사에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한인 물류회사, 두 번째는 큰 한인 여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입니다. 물류회사에서는 정확히 일주일, 여행사에서는 정확히 한 달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줄 곧 다닐 계획입니다.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 점에 양해바랍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인터뷰 방식이라면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을 잘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 질문과 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이 경험담은 오직 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주시고 그 와중에 독일에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조금이나마 느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독일에 취업하기 쉬운가요?**

결론은 ‘쉽다’입니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와서 독일에서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는 한인 기업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이력서 넣고 내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업무의 질” 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독일어를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와 다름없죠. 질을 양보하신다면 아주 마음 편히 출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와 같이 방향을 잡는 즉,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런 직장을 잡기 위해선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 **\*독일에서 취업하려면 가장 중요한 스펙은 무엇인가요?**

바로 어학 능력입니다. 어학별 중요 순서는 독일어, 영어, 한국어입니다. 어학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폭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만 할 줄 아시면 식당에서 주방 업무, 물류회사에서 창고 관리 및 포장 업무 등 단순 업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어에 영어도 할 수 있으면 물류회사에서 사무직뿐만 아니라 여행사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독일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면 모든 영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독일에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취업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리고 아직 열정이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독일 대학교에 교환학생이나 대학원에 다니면서 독일어 기본 회화를 숙달하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저도 현재 세계적 기업에서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영어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독일에서는 결국 독일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꼭 미리 독어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어 못하는데 만족스런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 경우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도 손해가 되는 채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능력이나 특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기막힌 운도 따라야 하죠. 회사에 인력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독어 못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맞는 타이밍... 결국 운칠기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만을 바라보며 취업을 준비하시기는 것에는 취직이 안될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채용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베를린리포트를 수시로 확인했고 월드잡플러스, 코트라카페도 종종 이용했습니다. 영어만 사용하는 직장을 찾으려 인디드도 사용해보았어요. 코트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취업을 위한 간담회나 잡페어를 개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구직자들을 만났고 제 정보력이 정말 미개할 정도라는 걸 깨달았죠. 회사별로 퍼져있는 소문들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자리면 지원했습니다.

**\*서류 작성에 팁이 있나요?**

제가 했던 방식과 취업 후 여러 인사 담당자분들만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집 공고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보냈습니다. 보통 이력서와 자소서죠. 취업을 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생각” 하기 입니다. 이력서, 자소서를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 편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력서 1장, 자소서 1장을 최대치로 두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편하게 말이죠.

입사 후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기본 서류는 4개라 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어학 증명서. 그리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문법적 실수에도 하나하나씩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저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회사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나를 드러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면접 볼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용모단정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깔끔한 복장과 용모에 이견이 없겠죠. 저는 면접 전날에 무조건 머리 손질하고 면접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들마다 기 기준이 다르고 회사에서 보는 기준도 또 다릅니다. 제게 자신감이란 어느 정도의 뻔뻔함입니다. 즉 ‘쫄지마’ 라는 것이죠.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실제 면접 볼 때에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한 면접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면접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른다” 고 대답했습니다. 곧 단서를 달았습니다. “면접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볼까 고민을 했었지만 얕은 지식으로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아는’ 척’ 하기 싫었다. 궁금한 것들은 면접하면서

직접 물어봐 해결하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입사 후에 동료들을 통해 알아가겠다.” 라고 말이죠. 정말 제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거짓말없이 말했습니다. 당해 회사에 취직된 후에 이사님으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자신감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결국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다는 대답으로 들리기 때문에 감점되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면접 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꼭 숙지하십시오. :)

다른 중요한 점은 ‘회사 입장에서 질문’ 하기 입니다. 우리는 보통 면접을 보면 우리 입장에 편중되어 질문합니다. ‘휴가는 얼마인가요?’, ‘점심은 제공하나요?’, ‘칼퇴 가능한가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나요?’, ‘어학 혹은 교통비 제공 등 복지는 어떤가요?’ 등... 이런 질문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 번 회사 입장의 질문을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령 ‘회사의 비전(올해 목표 등)은 무엇인가요?’, ‘매년 매출 성장률은 어떤가요?’, ‘새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제가 맡아야 할 업무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소통(상하좌우)은 잘 되나요?’ 등... 아마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금 더 진지한 인상을 줄 겁니다.

#### **\*만약 취업 전이라면 직장에서 필요한 무엇을 준비 할 건가요?**

딱 2개입니다. 독일어와 엑셀. 독일어는 언급을 자주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엑셀은 결국 나를 위해 필요합니다. 저처럼 인사와 총무 등 사무직을 하다 보면 노가다적 문서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독일인 스타일대로 세월아 내월아 며칠 느긋느긋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의 마인드로는 쉽게 허용이 안되죠. :) 상당 수의 독인 직원들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 놀랐고 심지어 인사

평가에서도 독일인 상사가 독일인 직원에 대해서 모든 점이 좋지만 엑셀을 다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자주 언급하는 걸 보곤 했습니다.

저는 엑셀 등 소프트웨어를 즐기며 다루는 편이라 사무 작업을 하면서 불편함은 느끼지 않지만, 더욱 발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종종 보며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엑셀 책을 딱 사서 시간 날 때마다 보며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며 체득하고 있죠. 그래도 직장 다니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엑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엑셀로 시스템을 만들 정도의 소위 ‘엑셀의 신’이 되고 싶은 거죠.

####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3개월동안 3군대의 회사를 옮겼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아내를 부양을 해야 했기에 경제적 부담감 속에서도 결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란 사람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이직을 했죠. 아마 그런 용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일주일 만에 그만 둔 첫 직장에 지금도 출근하며 아마 좀비가 되어있었을 겁니다. 보람을 느끼지 않는 일에 행복을 허비할 순 없죠. 마지막으로 운칠기삼, 취업도 운이 7이고 능력은 3이지만 그 행운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가오니, 우리 모두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잡아 꽃 길만 걸읍시다 ~ 쉼 ~ (끝)



## 보통사람의 독일 유학 및 취업 수기

### 평범한 학창시절

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자랐다.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고,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 하지도 못 하지도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에 맞추어 고향에 있는 대학의 기계과에 들어갔다. 학업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처음 접해본 술과 놀이문화에 빠져 1년 반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되었고, 자원입대를 하게 되었다.

### 비범함에 대한 갈망

평범하게 자랐지만 가슴 속에는 특별함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이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면 너무나 평범한 인생이 될 것 같았다. 그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 성공담들이 많이 출판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고 고무되어 미국 유학을 꿈꿔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차선책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명문대 편입도 준비해 봤다. 결과는 실패. 좌절하고 있을 때 다니던 대학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독일에 있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면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신분으로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과 토익 성적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었다.

### 첫번째 독일생활

독일에 도착했다. 일주일에 8시간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연구실을 갔지만 오전에는 할 일이 마땅치 않아

독일어 수업을 수강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나는 중급 독일어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 독일 유학 준비

한국에 돌아와보니 어느새 3학년 2학기, 대학 졸업 후를 계획해야 했다. 독일은 기계 분야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독일 유학이 나의 장래를 위해 좋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독일어 시험을 준비했고, TestDaf라는 독일어 시험에 조건부 합격을 하게 되었다. (TestDaf는 5점이 만점인 시험으로, 말하기 · 듣기 · 쓰기 · 읽기를 모두 평가한다. 3점은 대학에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이고, 4점으로는 공과대학에 입학가능하며, 인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5점이 필요하다.)

알고 지내던 선배 중에 국비유학 장학금을 받고 독일 유학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국비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 장학금에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에 뽑히게 되었고, 국비로 독일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었다. 국비유학의 조건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후 1년 안에 유학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졸업이 최소 2학기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다. 시간적으로 1년안에 마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22학점씩 꼭 채워서 수업을 듣고, 방학 중에도 계절학기를 신청해서 6학점씩 수업을 들었다. 덕분에 졸업요건은 맞출 수가 있었고, 나는 졸업예정자가 되었다.

독일 대학에 원서를 넣는 시기가 되어 나는 졸업예정자인 신분으로 독일 대학들에 원서를 집어 넣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답장을 받았다. 독일에는 졸업예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졸업논문을 써서 담당교수가 합격을 시키면 졸업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제각기

졸업을 했고, 졸업률 자체도 낮기 때문에 졸업예정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입학거절 편지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재량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학생이 부족한 대학들은 나를 받아주었다. 학비가 있는 사립대학(1년에 1만 유로)을 제외하고 나니 독일 북쪽 끝에 위치한 소도시(도시명)에 있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만이 남았고, 2012년 8월에 나는 이 대학의 합격증을 가지고 독일로 떠났다. (독일의 전문대학인 Fachhochschule는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대학인 Uni나 TU에 비교하면 독일의 수능시험인 Abitur에서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가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대학에서는 학문에 뜻을 둔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대학에서는 실무진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이미 모든 입학행정처리를 마치고 기숙사 입사일을 받은 상태였는데, 9월 중순에 합격통보를 해온 다른 대학이 있었다. (독일의 대학들은 대체로 10월에 학기를 시작한다.) 나를 받아준 대학은 구동독 지역의 A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었고, 그러다보니 계획한 만큼 학생이 뽑히지 않아서 추가로 나를 합격을 시켰던 것 같다. 이왕이면 전문대학보다 대학을 가자는 생각으로 입학을 취소하고 나를 받아준 대학에 입학하였다. 감사하게도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과인 에너지공학과였다.

## 독일 유학 시절

독일어시험에 턱걸이로 합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수업을 듣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공학과로 석사과정을 왔기 때문에, 전기에 관련된 과목들을 추가로 공부해야 했다. 전기공학개론만 학사과정에서 공부한 내가 독일어로 심화전기수업을 들으니 이해가 될 리가 없었다. 교수님들의 글씨는 필기체라 도저히 받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학생의 필기를 베껴 쓰거나 글씨 잘 쓰는 학생의 노트를 빌려서 복사해서 공부했다. (독일의 대학에서는 대체로 수업시간에 받아 적는 필기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프린트물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매일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그렇게 악몽 같은 첫 학기가 지나갔고, 열심히 공부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2학기 부터는 독일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석사과정 3년차에 같은 유학생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아껴 쓰던 장학금도 빠르게 고갈되었고, 학업을 마치기도 전에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각종 통역과 번역, 이사 도우미, 여행가이드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2년인 석사과정이 4년이나 걸렸다. 독일 대학의 졸업률 자체가 낮고, 대체적으로 정해진 학기 안에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독일 대학의 입학생 대비 졸업률은 31.7%이며, 정해진 학기 수 안에 학업을 마치는 학생은 졸업자 중에서도 34.3% 되지 않는다.)

## 취업활동

내 주변에는 독일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취직에 성공해 자리를 잡은 지인이 없었다. 독일인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라 할지라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취업은 쉽게 될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독일이 고급인력, 특히 엔지니어가 아주 부족하다는 통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처음에는 내가 전공한 분야와 딱 맞아 떨어지는 독일기업에 도전했다. 안타깝게도 내 석사논문 주제였던 화력발전

분야는 점점 인원이 감축되고 있었고 채용인원 자체가 적었다.

그래서 나는 독일기업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으로 타켓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독일에 법인을 둔 한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은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들이 현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계 기업이 한인을 뽑으면 독일노동청에서 왜 독일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독일인을 고용하지 않느냐며 취업비자를 주지 않는 등의 제제를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계 기업도 한인을 뽑기가 행정적으로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한국계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볼 수 있었던 기업은 A과 B 회사 두 곳이었다. 내가 전공한 에너지공학과는 무관 했지만 한국에서 공부한 기계공학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았고, A는 불합격했지만 B(자동차회사)에는 합격하여 임원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면접 날짜를 협의하던 중, 지인에게서 (회사명)라는 독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한국인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집어 넣었다. 감사하게도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서류심사 합격부터 면접까지 약 2주일간 시간이 있었고 나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회사가 하는 일과 그에 대한 기본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고 면접관(사장님과 팀장)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면접들은 1차 전화면접, 2차 실무진 면접, 3차 최종면접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C회사의 사장님은 한번의 짧은 면접으로 나를 종신직으로 고용하였다. C회사는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독일인인 중소기업이다.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필요했다고 한다.

## 취업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취직이 되기까지 나는 무엇보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독일은 한국만큼이나 인맥을 중요시 하는 사회였다. 독일인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쓰는 은어가 있다. 비타민 B가 없으면 취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B는 독일어로 Beziehung이라는 단어의 약자로, 관계라는 뜻이다. 많은 일자리들이 공고로 올라오지 않고 주변 지인의 추천을 통해 충원된다. (대기업인 Siemens같은 경우 지인추천을 통해 취업 되면 추천해 준 지인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한다.) 지인이 없다면 대학을 다닐 때 인턴십을 통해 미리 담당자와 인맥을 쌓고 대학을 졸업하면 입사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을 다닐 때 50% 이상의 독일 학생들은 이미 내정된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낙하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지만, 독일인들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본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친자식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부패를 불러오지 않는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맥을 쌓을 방법이 외국인에겐 상당히 제한적이다.

둘째, 독일 기업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력부족이 바로 새로운 피의 수혈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로 경력자를 스카웃 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대학을 막 졸업한 졸업자는 이론은 알지만 실무를 알지 못한다. 전문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더 그렇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업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업마다 직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를 졸업한 엔지니어들은 전문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 몫을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결린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과정을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인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셋째, 취업을 시키는 우선순위가 있다. 일단 독일인을 뽑고, 그 다음으로 유럽인, 그마저도 안 뽑히면 영어권 국민, 마지막으로 그 외의 나라사람이다. 한국은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와 문화, 언어 차이 때문이다. 유럽권 사람들은 같은 EU 시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문제없이 쉽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회사는 독일노동청에 이 외국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증명해야 하며, 여러 가지 번거로운 행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블루카드(부족한 고급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류허가증으로 한번에 주는 체류허가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를 받거나 독일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청에 통보절차(Meldepflicht)를 생략해도 되지만, 블루카드를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나는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지만, 블루카드를 받지 못했다. 엔지니어는 부족하지만 내가 일하는 직군인 프로젝트 엔지니어는 부족하지 않다고 노동청 직원이 판단했다. 나는 독일대학 졸업자였기 때문에 블루카드와 일반 취업비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불복하지 않고 일반 취업비자를 받았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도 고용인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리스크이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 회사생활

회사생활은 만족스럽다. 일주일에 자율적으로 40시간만 일하면 되고 휴가는

일년에 24일 이상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개인의 업무만 마치면 언제든지 퇴근해도 되며,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 출장 가는 여행시간까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으며 특별수당을 받는다. 저녁을 집에서 가족과 먹을 수 있고, 근무시간이 유연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을 빼서 각종 행정처리나 가족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플 때 출근하면 집에서 쉬라고 강제 귀환을 당한다.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일하기 좋은 조건이다. 물론 일터 내에서의 문화차이와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회사생활은 만족스러운 편이다.

### 독일 생활의 애로사항

독일의 기본세율은 45%에 육박한다. 물론 아이를 가진 기혼자인 경우는 조금 더 적은 세금을 내지만 30%이상은 누구나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많은 적든 생활이 여유롭지는 않다.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저축이나 재테크를 꿈꾸기는 쉽지 않다.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모든 서비스에 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종 수리부터 이사같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 같은 경우도 이사를 할 때마다 주방의 배관공사부터 전기공사, 목공공사, 심지어 바닥공사까지 스스로 해결했고, 집이 정상적으로 안정화 되기까지 대략 1년이 걸렸다.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중요하다 보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서의 권리는 자주 무시된다. 불편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쉽지가 않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근무시간을 빼서 해결해야 한다. 내가 근무할 때 그들도 근무하고, 내가 쉴 때 그들도 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독일어를 못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문화가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게 맞겠거니 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결론

독일 취업이나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외국 생활에 너무 환상만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나와 조금 더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나라가 있을 뿐이다. 환상만 가지고 한국에서의 기반을 포기하고 준비없이 독일로 넘어오기 보다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언어실력을 키우면서 서서히 독일행을 준비하기를 권유한다. 나같은 보통사람도 취업을 했으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반드시 독일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다. 화이팅! (끝)

(편집자 주) 취업 경험담은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자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각 경험담의 내용은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